

이젠 마음 비우거나 해인스님 지음

출가후 체험토대 正道이끄는 수상집

서울 불심사 주지 해인스님이 쓴 <이젠 마음을 비우거나>는 "이웃을 위해 따스한 교감을 나누고 함께 호흡하는 신선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잔잔한 수상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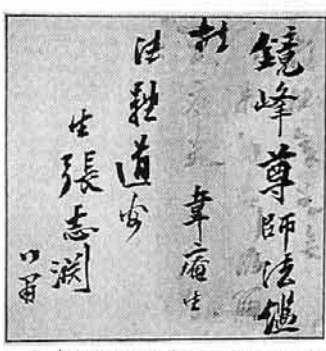
입산출가 이후의 체험을 한편의 산뜻한 수록화처럼 그리고 있는 이 책은 인간의 마음밭(心田)에 '실천하는 삶' '깨어있는 삶'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제시하는 '참'과 '존재'와 '진리'를 가득 담고 있다. 일상의 번잡을 작은 것 하나 놓치는 법이 없으면서도 따스한 눈길로 그 일상의 분주함을 응시하는 해인이 자비롭기만 하다. 스님은 "불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철학이다"고 말한다. <삼과품 6천5백원>

“선사들의 편지 어떤 소식 담겼을까”

근·현대 선종사 엮은 서간문집 2권 출간

대선사 대강백들의 편지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세간의 서간(書簡)과는 차이를 달리하는 격외(格外)의 문구(文句)로만 가득차 있을까.

경허스님(봉도사 극락선원장)이 역주(譯註)한 <삼소굴소식>은 경허선사(1849~1921)로부터 경봉스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고승 17명의 편지 247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도심(道心)에 입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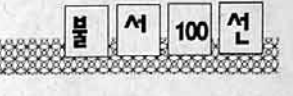


◇ '시일이방성대극(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장지연거사가 경봉선사에게 보낸 편지.

받은 깨달은 뒤의 보림(保任)소식은 접하기 힘든 희귀한 글들이다.

석주스님이 엮은 <남은 글월 모음>은 30여년간 운허 청담 고암 성철스님 등과 함께 만든 '돌모듬(축대를 다 쌓고 남은 돌들을 모아 놓듯이) 교계의 일을 상의하고

명사추천



티베트 死者의 書

인간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한번 죽음의 관문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죽으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모든 것은 끝나고 마는가? 영육(靈肉)은 부활하는가? 윤회(輪廻), 전생(轉生)은 있는 것인가? 종교에 따라 여러가지 논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본다.

인간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 철학이나 종교 분야의 책들은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필자는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경서원 판)를 소개하려 한다. 이 책은 티베트 불교 연구의 선구자인 옥스포드 종교학 교수인 W.y. 이반스웬스 박사와 티베트 어학자인 라마까지 대화삼담 스님에 의하여 1927년 세상에 소개되었다.



황영선 (변호사)

이 책은 윤회하는 존재를 유(有)라고 하고, 이 유가 태어나는 것을 생유(生有)라고 하며, 이 유의 죽음을 사유(死有)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생유와 사유의 중간상태를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고 한다. 이 중유의 기간은 49일간이며, 이 기간의 영혼을 중유체(中有身) 또는 중음체(中陰體)라고 한다. 우리는 불교의 상례로 49제라는 절차에 중중을 참여하는데 이것은 위와같은 불교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사자의 서>는 중음의 기간중에 있

“49일 중음의 과정으로 초대 생과 死의 의미 명상할 기회”

어서의 천도(薦度) 즉 티베트어로 바르도 쉼돌(BARDO THODOL)에 관한 책이다. 이 중음체는 49일동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 이 중음의 과정은 해탈하여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오(迷悟)의 세계 즉 육도에 윤회를 거듭하느니라의 갈림길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간에 해탈을 얻도록 천도하는 절차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이를테면 길을 떠날 영혼에 대한 인도서이며 교리이며 천도 말반인 것이다. 그리고 다만 듣는 것 만으로도 사자를 해탈·열반케 하는 교리인 것이다. 중음천도의 목적은 지도 승려(導師)가 중음의 과정을 해매고 있는 사자에게 그 자신의 환각의 성질을 설명해 주어 마치 꿈속을 방황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몽롱한 상태에 있는 사자에게 실체법계(實體法界)를 깨닫게 하고, 아득다라삼락삼보리(無上正等覺)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다. 대체로 '오! 기쁨있게 태어난 이여'라고 부르면서 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어떻게 인식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주문(呪文)도 소개하고 있다.

심리학의 새로운 논리를 전개한 20세기의 대석학 칼 구스타프 융 박사는 이 책을 애지중지 하면서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종교적인 믿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생리학적인 요거라고 하는 과학에 의하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실령(靈童)의 현자(賢者)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읽고 명상에 잠겨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화제의 책

유식입문 이지수 옮김

현대인을 위한 쉽게 쓴 유식학 개론서

“유식에서의 불교의 목적은 우리의 의식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여 바른 정보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동경대 명예 교수인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가 쓰고 동국대 이지수교수(인도철학)가 번역한 <유식입문>은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비유를 통해 쉽게 유식(唯識)을 설명한 개론서다. 유식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분본



별론(中邊分別論)과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유식삼십송' 등을 한 송씩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유식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개념을 새롭게 고친 명칭을 사용하면서 복잡한 개념에 대해서는 도표를 제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시공사 6천원>

화제의 책

문화전쟁 윤재근 지음

“한국인이여 주체적 문화정신 키우자”

“문화는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그것은 안을 내다보는 눈과 같다. 문화교류는 걸치레이고 그 실속은 치열한 전쟁이다.”

윤재근 한양대교수(국문학)가 펴낸 <문화전쟁>(동지)은 서구문화를 모방하던 서도 쿨쿨러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문화의식을 비판하고 21세기에 더욱 치열해질 문화전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집필기간 23년, 200여 원고지 2,400여장이 소요된 대작이다. 이 책을 '한국인에게 던지는 문화상소문'이라고 부르는 저자는 “원효 관어 박세당 김만중 장약용 등의 선학들이 보여준 자문화 중심의 정신을 흠모한다”고 말한다. <동지 1만5천원>

정토신앙 본질 밝힌 신행서

총담스님 '염불 정토삼부경' 펴내

태고종 원로인 총담스님(84·승가사 조실)이 정토신앙의 근본경전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등 3부경전을 편역한 <염불 정토삼부경>(한국불교출판부 판)을 펴냈다.

정토신앙의 본질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신앙자세와 방법을 상세히 밝힌 이 책은 현대인들을 위한 신행 길잡이 역할을 한다. 고려대장경의 3부경 원문을 그대로 축소영인, 한자에 한글음을 달아놓아 독송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원문과 해역(解譯)을 대조해 볼 수 있게했다.



문화도서 자료집 발간

문체부, 물서등 2백여종 선정

문체부는 주요 문화관련도서의 정보를 수집·정리한 <문화관련 도서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95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문체부에 납본된 신간도서 가운데 문화비평·예술이론 등 종합적인 문화관련 전문서와 문화재, 민속, 미술, 문화답사, 해외문화 등 각 분야의 안내서 200여종을 선정, 도서명·저자·출판사·발행일별로 정리했다. 이중 불서는 △한국 문화와 불교(불교시대사) △한



국사찰의 주련(전원문화사) △ 불교민속학의 세계(집문당) △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 △한국 불교미술사(술) △ 문화유산·명찰(한국문원) 등 16종이다. (02)720-3844

“풍토학으로 본 우주의 생성”

김유혁교수 '당신은 바람을...' 출간

천태종전국신도회장인 김유혁 단국대교수(도시공학)가 자연환경(風土)을 통해 우주생성의 원리와 전통종교의 의미를 설명한 책 <당신은 바람을 보았습니까?>(효형출판 판)를 펴냈다.

단국대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풍토와 인간'이란 강좌의 지상종계 성격을 띤 이 책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고 환경친화적 정신을 갖게 하는 재미있는 풍토학론이다. 종교 철학 역사 문화 환경 풍수지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2	삼은 곶가 아니다	해 일 타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4	도술전에서 만납니다	장 순 용	세계사
5	불교입문	조계종포럼	조계종
6	그 마음을 버려라	김 재 용	용 화
7	禪 이야기	일 지	문 주 사
8	네 발 밑부터 살피라	정 니	장 승
9	49제 공덕과 의미	전 집 부	이 바 지
10	참선교육	현 답	수 선

구입문의: (02)737-0695

#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 배고프면 먹고 즐리우면 자고

최신간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펼 펼 펼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리다고, 알아지는 할금부루, 기버워지는 호주머니, 명예지이니 권고사지이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뱀줄, 사람만 있고 사랑은 없는 이 시대를 탄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행동하는 부처 박삼중 스님이 전하는 맑고 시원한 샘물 같은 메시지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속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파다가 지식에 묻히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식에 얽매었던 틈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버림받은 문 세상에 안내하고 싶다.

- 작기의 말 -

삼중스님 에세이

### 결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든..... 결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묵박 하나, 금강경, 그림 몇 점 담긴 남루한 결망이 때로는 부끄럽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술한 삶의 고비길에서 비상 아닌 보살들을 만나며, 겪어는 마음의 함장을 곧추세웠다. 살아 성불하기보다 사비한 미소 한줌 잃지 않으려고.

■ 신국판/320면/값 6,000원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참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니 전상서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송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씌어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 신국판/232면/각권 값 5,500원

출판권고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라이프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